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성향 특성*
- 수직 및 수평차원의 개인 vs. 집단주의 성향 중심 -

Cultural Propensity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a Korean Rural Area:
Comparison of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in
Vertical and Horizontal Dimension

양순미**
Soon Mi Yang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compar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ropensity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a Korean rural area. By result of comparison on nationality, the level of collectivism was higher than it of individualism in every country, but the level of collectivism among the countries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level of individualism among the countries was difference significantly, and the level of individualism of Chinese is most high but it of Japanese is most low.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probability to be involved in the group that level of individualism is high was heightened as respondent have no religion or their's satisfaction on rural life increase. The level of horizontal propensity was higher than it of vertical propensity both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ut the result of comparison on nationality, difference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propensity was no significant. Besides of these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 본 연구는 2010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과제(PJ006956201003)의 일부임.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e-mail: ysm@korea.kr

주요어(key words): 농촌(Rural), 여성결혼이민자(Married Immigrant Women), 개인주의(Individualism), 집단주의(Collectivism)

1. 문제제기

문화란 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자명성(自明性)의 집합체로서 한 사회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조망과, 사회행위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Hofstatter, 1996; 조궁호, 1993에서 재인용). 또한 과거 인간행동의 산물이면서 미래의 인간행동의 조형자로서, 인간은 문화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행동은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Segall, Dasen, Berry, & Poortinga, 1999). 따라서 인간은 문화구속성(Shweder, 1990)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며, 인간행동은 필연적으로 문화적 의미를 떨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같은 문화집단에 속하는 성원들은 그들만의 특징적인 심리내용과 행동양식을 가지게 되며(조궁호, 2003), 반면 다른 문화집단에 속하는 성원들은 다른 심리내용과 행동양식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개인들이 지니는 문화사회적 환경에 대한 상대적인 독립성과 의존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행위에 있어서 나타나는 개인 및 집단차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¹⁾ 등의 프레임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또한 특정 문화 패턴은 수 세

1)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성향은 사회 및 구성원의 문화성향적 특성을 구분짓는 틀로서 Hofstede(1980)연구 이후에 이용되어 오고 있는데,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문화차이 및 한 개인내에서의 개인적인 문화성향의 차이를 비교하는 틀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차원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틀로서 기능해 왔다.

기동안 지속되어 왔거나 때로 수 십년 동안의 상황에 의해 그 자체가 변형되기도 하였다. 실례로 현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에 의하면 현대화는 가족구조·교육수준·도시화의 변화와 같은 일련의 사회구조 변화를 야기하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장려한다(Hamamura, 2012).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 사회가 전개되고 있는 농촌사회에 정주하는 다양한 출신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니는 문화성향은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 교차문화적(cross-cultural) 으로 변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개인주의 국가들은 서양문화권에, 대부분의 집단주의 국가들은 동양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동일 동양문화권이라 할지라도 국가차원의 문화적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 (한민 등 2009)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개인적인 문화성향이 변화할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가족 및 지역공동체 문화가 변용될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 구조적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성향의 변화 양상을 종단적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을 통해 추적하거나, 횡단적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을 통해 출신국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성향을 비교하는 작업은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유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국(조선족),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수직 및 수평적 차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특성 및 차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농촌사회에 정주하는 다양한 출신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하는 갈등이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탐색

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

사회문화적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개념들중에 Hofstede (1991)가 제시한 개인-집단주의 개념은 비교문화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동·서양의 문화적 가치, 사회적 지각, 정서, 동기, 관습, 제도 등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비교하는 가장 핵심적인 틀로 이용되어 왔다(조궁호, 1996; 한규석, 1991).

한 사회를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로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Triandis와 그의 동료들은 개인-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을 네가지 하위속성을 들어 비교하였다. 그 네가지 속성으로 첫째, 자아의 특성이 개별적인 개체의 특징을 많이 반영하는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특징을 많이 반영하는지를 든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둘째 속성으로 개인목표와 집단목표의 충돌시 어느 것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인지를 든다(Triandis, 1996). 셋째 속성은 대인관계를 교환관계로 보는지 아니면 정(情)의 관계로 보는지의 특성이다(최상진·한규석, 1998). 넷째 속성은 사회적 행위의 주 결정인자가 개인의 태도인지 아니면 사회적 규범인지의 문제이다(오세철·윤덕현, 1982). 이 네가지 속성에서 개인주의 문화권은 개별적 자아, 개인 목표 우선성, 교환관계 추구, 태도의 지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특성을 보인다. 이외에도 개인주의 문화에 전제되는 가정은 첫째, 개척자들이 있고, 둘째, 상당한 숫자의 외래이민이 있으며, 셋째 지리적·사회적 이동성이 높다는 것

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개인에 대한 내집단의 영향을 줄이는 작용을 하게 되며 미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 기준에 의해 높은 수준의 개인주의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Hofstede, 1980; Triandis · Chen & Chan, 1998).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권은 관계적 자아의 강조, 집단의 목표 우선성, 정의 관계 추구, 규범의 지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개인주의 국가들은 서양문화권에, 대부분의 집단주의 국가들은 동양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나, 어느 사회가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문화로 표명되더라도 완전한 개인주의나 완전한 집단주의 사회는 존재할 수 없고 두 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나며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많은가에 따라 구분된다. 그동안 집단주의 문화라고 통칭되던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 문화도 그 내용이 다양하여, 집단주의 문화라고 동일하게 분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거나(한민 등 2009), 동일 문화권에서도 세대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젊은 세대는 개인주의적 생활모습을 띠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한규석, 199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은 오래동안 단일민족적 관념이 지배해 오다가 최근에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농촌사회에서 각기 서로 다른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성향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2.2.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수직/수평적 차원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은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 구분이 매우 단순하여 동일한 개인-집단주의 문화내에서 사람들간의 평등이나 경쟁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 개념에 수직성과 수평성의 개념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Triandis와 Gelfand(1998)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VI)는 각 개인의 자율적인 자아를 우선하되, 개인들 각각을 서로 다른 존재로 인식하여 개인간의 불평등이 있음을 예상하고, 개인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관점이다.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HI)는 개인의 자율적인 자아가 중요하고 모든 개인은 다소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개인주의 관점이다.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VC)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보고 집단속의 개개인들은 각각 서로 다르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집단주의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불평등이 인정되어 때로는 집단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강조하고,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서로간의 위계질서가 확고하고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보되, 모든 개인은 평등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성향의 사람들은 서로를 비슷하다고 여기고, 공동체적 목표를 강조하며 대인관계를 중시한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들 간의 지위격차나 위계성 및 사회적 권위의 획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Triandis & Gelfand, 1998) 지적된다.

Triandis 등(1988)에 의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주의 문화보다 세력관계가 불균형적이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수직적 관계인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부부관계, 친구관계와 같은 수평적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지시, 자문 등을 자주하여 상호의존성을 최대화하며, 부모들이 자녀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하는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분리, 독립, 그리고 자녀의 사생활 보호가 더 강조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수직성과 수평성의 문화성향 개념은 오래 전부터 집단주의로 분류되어온 아시아지역으로 부터 우리의 농촌사회로 결혼 이민해 온 여러 출신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성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2.3. 국가간 개인-집단주의 및 수직/수평차원 특성의 비교

2.3.1. 국가간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의 특성 비교

개인-집단주의 관점을 적용한 연구들은 한국 사회를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한다(이종환, 2000; 박현경, 2003). 또한 한국 사람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차별성을 갖고, 자신이 속해 있는 내집단을 중시하는 관계주의의 속성을 띠는 것으로 지적된다(한규석, 2002).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전통적인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로 변화해 가고 있다(김수경, 2003).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면서 상호협조적 자기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중국, 일본사람들의 자기관을 분석한 결과(한민 등, 2009)에 의하면, 주체성은 한국과 중국보다 일본 대학생들이 낮았고, 대상성은 일본이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 중국의 순이었으며, 자율성은 중국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이 가장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연명흠(2010)에 의하면 중국의 개인주의는 네델란드와 일본보다는 낮지만 한국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직무가치를 비교한 연구(김서균, 2003)에 의하면 한국이 개인주의 지수가 가장 낮고 가장 집단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몇 개의 민족들이 혼합된 국가로써 사회주의 국가이거나 오랫동안

동안 지속된 서구유럽의 지배에 따른 영향으로 개인주의적 사고가 더 팽배한 반면 한국은 단일민족적의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이 다르게 규명되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문화의 비연속성상에서 한국에 결혼이민해 온 여성들의 문화성향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개인-집단주의 특성을 규명하는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3.2. 국가간 수직-수평주의 차원의 특성

Triandis(1995)에 의하면 미국의 중상류층은 위계성을 강조하는 수직적인 개인주의 사회로써(Markus & Kitayama, 1991), 사회적 부가 각 계층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남과 다른 독특한 생활 방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반면 중국이나 인도 및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는 구성원들의 위계를 중시하는 수직적 집단주의 사회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한국사회는 강한 유교적 전통으로 집단주의 문화이며 그중에서도 수직적 사회로 분류된다(한규석과 신수진, 1999).

왕샤오링(2006)²⁾에 의하면 중국과 한국은 두 나라 모두 개인주의 성향보다 집단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으며 집단내에서 가부장적 권위가 인정되는 유사성을 지녔으나, 좀 더 치밀하게 두 나라 사람들의 집단주의적 성향과 집단내의 대인관계 방식을 살펴보면 중국학생보다 한국학생에게서 더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며 한국인의 집단은 분명히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Triandis, Chen과 Chen(1998), Triandis와 Gelfand(1998)가 한국, 미국, 홍콩의 대학생을 대상³⁾으로

2) 1998년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실시한 “한국인이 의식과 관행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한국전역에 걸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중국 일반 사회조사(CGSS)”자료중 연결망 부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중국 전역에 걸쳐 5,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실시한 비교문화적 연구에서 한국은 수평적 개인주의자(34%)·수평적 집단주의자(33%)·수직적 개인주의자(20%)·수직적 집단주의자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데 비해, 미국은 수평적 집단주의자(43%)·수평적 개인주의자(25%)·수직적 개인주의자(21%)·수직적 집단주의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홍콩은 수평적 집단주의자(41%)·수평적 개인주의자(25%)·수직적 개인주의자(19%)·수직적 집단주의자 순으로 높게 분포되었다.

한규석과 신수진(1999)에 의하면 한국사회가 전통적 수직적, 집단주의적 문화성향과 함께 수평적, 개인주의적 문화성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Likert 유형의 설문조사는 한결같이 한국사회가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이지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나타난 결과는 행위와 모습은 개인주의적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한국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내면은 여전히 집단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내포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김수경, 2003).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수직 및 수평 차원적 특성은 동일문화권내에서도 세대 및 계층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지역에 유입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수직적 및 수평적 문화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한국 중앙대학교에서 326명이, 미국 일리노이아에서 126명이 각각 조사되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농촌 남성과 결혼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이다. 이들 대상국은 2009년 통계청의 자료⁴⁾를 참고하여 출신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순서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다.

조사는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계통추출에 의해 선정된 전국 187개 농촌생활지표 조사마을중 전국 9개도 43개 시·군 43개 마을을 재계통추출⁵⁾하여 해당마을과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총 396명이 조사되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자료를 이용해서 43개 마을에 대한 농촌생활지표조사 현지 모니터들이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필리핀인 결혼이민자, 베트남인 결혼이민자, 캄보디아인 결혼이민자는 각각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번역⁶⁾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록하는 식으로 조사하였다.

4) 2011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에서 부터 2011년 사이에 혼인한 여성결혼 이민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순서로 많으며 이들 5개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6.8%에 달한다.

5) 2000년 한국행정구역총람을 이용해 추출된 187개 마을을 일정한 급간으로 재계통추출하여 선정하였다.

6) 설문지 번역은 국내 번역업체가 주관하여 영어로 일차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베트남 및 캄보디아 현지에 연결하여 해당 국가어로 번역하여 완성하였다.

3.2. 척도

3.2.1. 수평 및 수직적 차원에 따른 개인-집단주의 문화 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 이용한 척도는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 (1995)가 제작한 개인-집단주의 성향(INDCOL) 척도를 김기범(1996)이 우리나라 판으로 32문항으로 표준화 한 것이다. 이 척도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 성향을 다시 수직/수평(vertical/horizontal)으로 나누어 4개 하위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각 하위영역별로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강하여 변별력이 낮은 2개 문항을 제외하고 4개 하위영역별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직적 개인주의는 개인들 각각을 서로 다른 존재로 인식하며 개인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관점에서 '경쟁 없이는 좋은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등과 같은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평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율적인 자아가 중요하고 모든 개인은 다소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개인주의 관점에서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수직적 집단주의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보며 불평등이 인정되어 때로는 집단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서로간의 위계질서가 강한 집단주의 관점에서 '가족들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수평적 집단주의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보되, 모든 개인을 평등하게 인식하며 공동체적 목표를 강조하는 집단주의 관점에서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등과 같은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Likert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각 하위영역별 문화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개인주의 문화성향 점수는 수직적 개인주의(VIND)

와 수평적 개인주의(HIND)를 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집단주의 문화성향 점수는 수직적 집단주의(VCOL)와 수평적 집단주의(HCOL)의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수직적 개인주의 척도의 Cronbach's α 는 .66, 수평적 개인주의 척도의 Cronbach's α 는 .71, 수직적 집단주의 척도의 Cronbach's α 는 .70, 수평적 집단주의 척도의 Cronbach's α 는 .68, 개인주의 척도의 Cronbach's α 는 .79, 집단주의 척도의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3.2.2. 사회인구학적 변인 관련 척도

생활수준과 한국어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양순미(2001)의 6점 Likert 척도를 이용 또는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기타 연령, 학력, 동거하는 가족원 등은 양순미(2001)의 척도를 이용하여 개방형으로 질문한 뒤 분석과정에서 학력은 초졸에서 대졸 수준까지 연속적으로 재배열하고 가족원들은 가족형태별로 재조합하여 활용하였다.

3.3. 자료의 분석

총 396명이 조사되었으나 미응답이 많아 분석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위에서 제시한 5개 출신국 이외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응답한 자료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중국인 결혼이민자 69명, 일본인 결혼이민자 67명, 필리핀인 결혼이민자 86명, 베트남인 결혼이민자 108명, 캄보디아인 결혼이민자 26명 등 총 356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량(빈도, %, 평균값)분석, paired t-test, ANOVA, ANCOVA,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 등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조사대상자 및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평균거주기간은 일본 149.67개월, 중국 106.22개월, 필리핀 94.54개월, 베트남 49.89개월, 캄보디아 46.24개월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은 일본 44.26세, 중국 38.15세, 필리핀 34.37세, 베트남 26.80세, 캄보디아 26.73세이었다. 남편과의 평균 연령차이는 일본이 약 2.8세로써 가장 적은 반면 캄보디아는 약 17.2세로써 가장 컸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중국·일본·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양순미, 2006)와 유사한 양상으로써 농촌지역의 중년기 국내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가 약 3세이라는 점(양순미·정현숙, 2005)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는 비교적 높은 연령 차이를 보이며,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 이러한 연령차이가 보다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은 전문대학을 중퇴한 수준으로써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인 한국인 남편의 학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으로써 한국인 남편들의 학력 수준과 유사하거나 낮았다. 이를 농촌지역의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아내와 남편의 평균 학력수준을 비교한 연구에 비추어 볼 때(양순미, 2001)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들은 농촌지역의 일반 중년기 가족의 남편들과 학력수준이 유사한 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학력은 평균 중졸수준인 한국 농촌의 일반 중년기 가족의 아내들의 학력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인지한 자신들의 가족의 생활수준은 캄보디아가 3.38로 가장 높은 반면 베트남은

3.10으로써 가장 낮았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원의 수는 일본이 4.55명, 필리핀이 4.06명, 베트남이 3.93명, 중국이 3.77명 캄보디아 3.62명 수준이었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 특성의 평균 분석

출신국가	내용	연령		학력	
		결혼이민자	남편	결혼이민자	남편
		M(S.D.)	M(S.D.)	M(S.D.)	M(S.D.)
	중국	38.15(8.15)	46.94(7.85)	2.77(1.05)	2.86(0.83)
	일본	44.26(5.50)	47.09(5.28)	3.66(0.92)	2.88(1.18)
	필리핀	34.37(7.15)	45.38(5.47)	3.81(1.22)	2.86(1.11)
	베트남	26.80(3.82)	43.43(4.56)	2.41(0.93)	2.93(0.91)
	캄보디아	26.73(3.09)	43.96(4.90)	2.43(0.95)	2.83(0.92)
	F값	104.19***	6.17***	28.65***	0.09
출신국가	내용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수준	생활수준	가족원 수
		M(S.D.)	M(S.D.)	M(S.D.)	M(S.D.)
	중국	106.22(54.78)	4.20(1.23)	3.11(1.08)	3.77(1.35)
	일본	149.67(65.85)	3.87(0.92)	3.26(0.97)	4.55(1.42)
	필리핀	94.54(43.54)	3.27(1.00)	3.22(0.93)	4.06(1.23)
	베트남	49.89(26.08)	2.99(1.07)	3.10(1.14)	3.93(1.37)
	캄보디아	46.24(23.65)	3.12(1.03)	3.38(0.64)	3.62(1.24)
	F값	56.08***	17.47***	0.62	3.92**

** $p < .01$, *** $p < .001$

4.2.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 특성

4.2.1. 출신국별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일반적인 특성⁷⁾

출신국별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표 2), 아시아권인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평균 44.06~46.01점으로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평균 21.27~22.30점의 분포를 보인 수직적 집단주의와 평균 22.60~23.71점의 분포를 보인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성향에서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별 개인주의 문화성향의 차이는 평균 36.91~42.86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일본이 개인주의 문화성향이 가장 낮은 반면 중국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평균 17.72~20.81점의 분포를 보인 수직적 개인주의 문화성향이나 평균 19.19~22.04의 분포를 보인 수평적 개인주의에서도 유사하였다. 출신국별로는 모든 차원에서 일본이 개인주의 문화성향이 가장 낮은 반면 중국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한편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상이한 양상은 이들 국가의 사람들이 양쪽 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나 사회적 관계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일본은 주변적 존재로 자기를

7) 연구대상자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대(20,30,40대), 거주기간(60개월이하, 61-120개월, 121-180개월, 181개월 이상), 학력수준(초중-대졸), 생활수준(하하-상하)에 따른 수직 및 수평적 차원의 개인-집단주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에 따른 수직적 개인주의(VIND)와 수평적 집단주의(HCOL)의 집단간 차이만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이어 공분산 분석(ANCOVA)을 통해 교육수준의 Covariate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간의 문화성향의 차이에 있어서 교육수준의 Covariate 효과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식하는 대상성 자기가 우세(이누미야, 2004)한 반면, 중국은 주체성 자기가 우세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중국, 일본사람들의 자기관을 분석한 연구(한민 등, 2009)와 유사한 것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주체성은 한국과 중국보다 일본 대학생들이 낮았고, 자율성은 중국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이 가장 낮았다.

〈표 2〉 출신국별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일반적인 특성

내용 출신 국가	개인주의			집단주의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M(S.D.)	M(S.D.)	M(S.D.)	M(S.D.)	M(S.D.)	M(S.D.)
중국	42.86(4.34) ^A	20.81(2.76) ^A	22.04(2.63) ^A	46.01(4.83) ^A	22.30(2.96) ^A	23.71(2.61) ^A
일본	36.91(5.16) ^C	17.72(2.91) ^B	19.19(3.01) ^{BA}	44.06(4.90) ^A	21.46(2.83) ^A	22.60(2.53) ^A
필리핀	41.03(6.30) ^{BA}	19.74(3.57) ^A	21.29(3.50) ^C	44.47(5.73) ^A	21.79(3.10) ^A	22.67(3.19) ^A
베트남	40.04(5.36) ^B	19.57(2.86) ^A	20.46(3.18) ^B	44.33(4.94) ^A	21.40(3.18) ^A	22.94(2.49) ^A
캄보디아	40.50(6.22) ^B	19.73(3.56) ^A	20.77(3.22) ^B	44.69(6.30) ^A	21.27(3.90) ^A	23.42(2.94) ^A
계	40.27(5.75)	19.52(3.22)	20.75(3.26)	44.67(5.24)	21.67(3.12)	22.99(2.75)
F값	10.71 ^{***}	8.89 ^{***}	7.93 ^{***}	1.52	1.14	2.00

*** $p < .001$

4.3.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개인 및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차이

아시아권인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성향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표 3),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개인주의 문화성향보다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여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모두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개인주의 문화성향보다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것을 다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표 3-1>, 5개국 모두에서 개인주의 보다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간의 문화성향의 차이의 정도는 일본이 가장 크고, 중국이 가장 적은 양상을 보였다.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차이를 출신국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여 두 가지 차원 모두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개인주의 문화성향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간의 문화성향의 차이의 정도도 모두 일본이 가장 크고, 중국이 가장 적었다.

<표 3>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 간의 차이

변인	M	S.E.	t값
수직적인 개인주의-집단주의	-2.15	0.19	-11.36***
수평적인 개인주의-집단주의	-2.24	0.16	-13.65***
전체적인 개인주의-집단주의	-4.40	0.28	-15.96***

*** $p<.001$

<표 3-1> 출신국가별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 간의 차이

출신국가	내용	개인주의-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전체적 개인주의-집단주의
		M(S.D.)	M(S.D.)	M(S.D.)
중국	-1.49(3.43) ^A	-1.67(2.96) ^{BA}	-3.16(4.52) ^A	
일본	-3.75(3.28) ^B	-3.40(2.58) ^C	-7.15(4.60) ^B	
필리핀	-2.05(3.82) ^A	-1.38(3.36) ^A	-3.43(5.58) ^A	
베트남	-1.82(3.34) ^A	-2.47(3.14) ^{BAC}	-4.30(5.15) ^A	
캄보디아	-1.54(3.91) ^A	-2.65(2.61) ^{BC}	-4.19(5.00) ^A	
F값	4.52***	5.09***	6.87***	

*** $p<.001$

4.4.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수직 및 수평적 차원의 문화성향 차이

아시아권인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수직 및 수평적 차원의 문화성향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표 4>,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성향 모두에서 수직적 특성보다 수평적 특성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이것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표 4-1>, 5개국 모두에서 그리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성향 모두에서 수직적 특성보다 수평적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표 4> 수직 및 수평적 차원의 문화성향 차이

변인	M	S.E.	t값
수직개인주의-수평개인주의	-1.24	0.16	-7.80***
수직집단주의-수평집단주의	-1.32	0.14	-9.32***

*** $p<.001$

<표 4-1> 출신국가별 수직 및 수평적 차원의 문화성향 차이

출신국가	내용	수직-수평 성향	
		개인주의	집단주의
		M(S.D.)	M(S.D.)
중국	-1.23(3.18) ^A	-1.41(2.79) ^A	
일본	-1.48(2.91) ^A	-1.13(2.19) ^B	
필리핀	-1.55(3.20) ^A	-0.88(2.61) ^A	
베트남	-0.89(2.81) ^A	-1.54(2.86) ^A	
캄보디아	-1.04(2.72) ^A	-2.15(2.85) ^A	
F값	0.73	1.48	

5. 요약 및 논의

문화는 인간행동의 산물인 동시에 인간행동은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Matsumoto, 2000). 가치관은 개인 및 집단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기능하는 사회문화적 산물이다. 따라서 개인의 문화적인 성향은 국가적인 또는 사회환경적인 맥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문화성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Hofstede(1991)가 제시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이론 틀과 여기에다 수직성과 수평성의 개념(Singelis 등, 1995 등)을 추가한 이론틀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에 의하면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수직/수평적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포함한 집단주의 수준은 출신국가별로 유사하여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그러나 수직/수평적 개인주의 문화성향을 포함한 개인주의 수준은 출신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일본이 개인주의 문화성향이 가장 낮은 반면 중국이 가장 높았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성향이 출신국을 막론하고 동양문화권을 대표하는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근거로 하면서 개인이 접한 각기 다른 사회구조적 여건에 따라 개인주의 문화성향의 보유정도가 다르게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상이한 양상은 이들 국가의 사람들이 양쪽 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나 사회적 관계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일본은 주변적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는 대상성 자기가 우세(이누미야, 2004)한 반면, 중국은 주체성 자기가 우세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비교문화적 차원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들(김서균, 2003; 연명흠,

2010 등)에 의하면 한국은 개인주의 문화성향이 낮고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개인주의 문화성향의 특성이나 지향 정도에 따라 한국 정착과정에서 농촌의 가부장적이고 부계혈통적인 위계구조에 대해 문화적인 차이와 갈등을 가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양순미 등(2009)의 의하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화차이를 인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부양방식인 것으로 밝혀져 이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둘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성향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수직/수평적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포함한 집단주의 수준은 개인주의 문화성향 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것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5개국 모두에서 이와 유사하게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간의 문화성향의 차이 정도는 일본이 가장 크고, 중국이 가장 적었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수직 및 수평적 문화성향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성향 모두에서 수직적 특성보다 수평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이것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국은 강한 유교적 사상에 근거한 부계혈통의 위계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주의 가치를 선호해 왔고(양순미, 2001; 조혜정, 1985), 서열이나 위계를 중시하는 수직적 집단주의 사회로 분류되고 있어서(왕샤오링, 2006; 한규석과 신수진, 1999),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보다 강한 수평적 문화성향 특성은 한국생활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을 유발할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차문화적(cross-cultural) 갈등이나 차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해 주며,

다문화사회가 전개되고 있는 농촌지역사회에 정주하는 다양한 출신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탐색하거나, 다문화적인 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을 통해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데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로 인용한 한국의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은 측정도구 및 연구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데 한계를 지니며, 향후 지속적이고 종단적인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의 개인-집단주의 문화성향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 김서균. (2003). 아시아 5개국 현지 근로자들의 직무가치 성향 분석- G. Hofstede 5 차원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5, 225-253.
- 김수경. (2003). 외국생활 경험이 여성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성역할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구. (2007). 個人 對 間人 : 일본인론의 탈오리엔탈리즘의 과정. *일본연구논총*, 26, 365-392.
- 박현경. (2003). 집단상담 참가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담자 역할기대 및 치료적 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순미. (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양순미, & 정현숙. (2005).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중단적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27-46.
- 양순미, 한춘희, & 양점남. (2009). 농촌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6(2), 253-284.
- 연명흠. (2010). 중국, 일본, 네덜란드, 한국의 개인주의 감성 비교. *감성과학*, 13(1), 79-90.
-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4). 한일 비교성격론. *일본연구*, 11, 101-124.
- 이종환. (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201-219.
- 오세철, & 윤덕현. (1982). 휘시베인의 행동예측 모형에 관한 연구. 오세철(저), *한국인의 사회심리*, 91-105.
- 왕 샤오링. (2006). 한국과 중국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비교 연구 : 연출과 왈시(관계)의 차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궁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대인평가 이원모형의 확대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4-149.
- 조궁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04-139.

- 조공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
- 조혜정. (18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 79-96.
- 한규석. (1991).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1), 1-19.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학지사.
- 한규석, &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지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소혜, & 장웨이. (2009).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국가 간 비교 연구 :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49-66.
- Hamamura, T.(2012). Are cultures Becoming Individualistic?: A cross-temporal comparison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1), 3-24.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Beverly Hills, CA : Sage Press.
- Hofstede, G. (1983). Dimension of national cultures on fifty countries and three region. In J. B. Deregowski, S. Dziurawiec, & R.C. Annis(Eds.), *Explications in cross-culture psychology*(pp.335-355). Liss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 Hofstede, G. (1991). *Culture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 McGraw-Hill.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People around the world*(2nd. Ed.), Belmont, CA: Wadsworth.
- Segall, M. H., Dasen, P.R., Berry, J. W., & Poortinga, Y. H. (1999). *Human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An introduction to cross-cultural psychology*(2nd ed.). Boston, MA: Allyn & Bacon.
- Shweder, R. A. (1990). Cultural psychology-what is it? In J.W. Stigler, R.A. Shweder and G. Herdt(1990). *Cultural psychology: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ngeli, T. M., Triandis, H. C., Bhawuk. D. D., & Gelfand, M. (1995). Horizontal

-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 Cultural research*, 29, 240-275.
- Triandis, H. C., Bontempo, R., Vi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rou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Triandis, H. C. (1995). The psychological measurement of cultural syndromes. *American Psychologist*, 51, 107-215.
- Triandis, H. C. (1996). The psychological measurement of cultural syndromes. *American Psychologist*, 51, 407-415.
- Triandis, H. C., Chen, X.P. & Chan, D. (1998). Scenarios for the measurement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4, 29-2, 275-289.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논문투고일: 2012. 5. 10

1차수정일: 2012. 6. 15

2차수정일: 2012. 8. 10

게재확정일: 2012. 9. 8